

광주 민간공항 2021년 무안공항에 통합

광주시·전남도 민선 7기 첫 상생협의회 상생발전 시동
군공항도 조기 이전 협력 ... 한전공대 설립 추진위 건의

광주시와 전남도가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공항으로 통합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또한, 군공항 이전 협력, 한전공대 설립, 국립심뇌혈관질환센터 유치 등에도 힘을 모으기로 하는 등 민선 7기 상생발전 시동을 걸었다. <관련기사 2·3면>

광주시와 전남도는 20일 전남도청에서 이용섭 시장, 김영록 지사, 민간 자문위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발전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민선 7기 출범 후 처음이자 2016년 11월 이후 1년 9개월 만에 마련된 자리였다.

양 시·도는 이날 기존 상생발전 과제 15개 사업에 더해 새로 선정된 9개 협력과제에 대해서도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을 합의했다. 신규 과제로는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 ▲광주 군 공항 이전 협력 ▲한전 공대 설립 ▲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조성 ▲국립 심뇌혈관질환 센터 유치 ▲2018 전남 국제수목비엔날레 성공개최 협력 ▲제12회 광주비엔날레 성공개최 협력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통합 부분 설치·운영 ▲한국학 호남진흥원 운영이다.

특히 무안국제공항을 국토 서남권 거점 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광주 민간공항을 오는 2021년까지 무안공항으로 통합하고, 기반시설 확충 및 호남고속철도 무안공항 경유 노선 조기 완공 등에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광주 민간공항이 무안공항으로 통합된다면, 광주 군 공항도 전남으로 이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군 공항이 조기에 이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이를 위해 이전 대상 지자체, 국방부, 사·도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이전 지역 주민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찾는데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도는 군공항 이전 지역에 대해 국책사업 등이 최대한 지원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한전 공대 설립과 관련해서는 자연·축소 없이 애초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오는 2022년 3월 개교할 수 있도록 정부와 광주 시·전남도·한전이 참여하는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을 정부에 건의하고 관련 법률 제·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빛가람혁신도시 조성 당시 사·도가 합의한 광주·전남 공동 발전기금도 조성한다. 이전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를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근거가 될 조례를 연말까지 제정하고, 곧바로 기금 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국정과제인 국립 심뇌혈관질환 센터 유치를 위해서는 사·도 합동 유치 위원회를 오는 9월까지 구성해 유치활동을 공동으로 펼친다.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통합본부도 설치·운영한다.

오는 9월 열리는 '2018 전남 국제수목비엔날레'와 '제12회 광주비엔날레'의 성공개최를 위해 관광상품 공동개발, 홍보 등의 분야도 협력하기로 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0일 오전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민선7기 첫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에 참석해 상생협력력을 다짐하며 서로 끌어안고 있다. /최해배 기자 choi@kwangju.co.kr

태풍 '솔릭' 내일 영향권 광주·전남이 위험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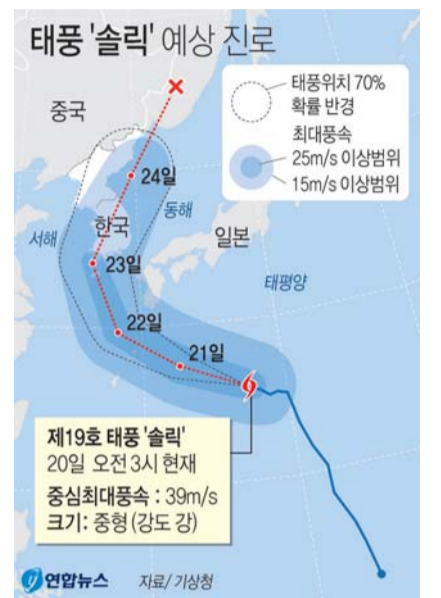
역대 최악 '루사'와 비슷

강·중형급인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이 23일 광주·전남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역대급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관련기사 7면>
정부와 광주시, 전남도 등 자치단체들은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하는 등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20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제19호 태풍 솔릭(중심기압 960hPa, 최대풍속 39m/s)은 이날 오후 3시 현재 일본 가고시마 남동쪽 780km 부근해상에서 서북쪽을 향해 진행하고 있다. 솔릭은 22일 오후 늦게부터 광주·전남권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솔릭'이 광주·전남을 관통한다면 2012년 '산바' 이후 6년만이다.

기상청은 솔릭이 22일 밤 제주도 부근을 지나 23일 새벽 목포 등 전남해안으로 상륙한 뒤 우리나라를 대각선으로 관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솔릭의 예상 경로는 역대 최악의 태풍으로 꼽히는 루사와 비슷해 호남권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곳곳에 큰 생애기를 남길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기상청은 22-23일 서해안과 남해안에는 5-8m의 매우 높은 물결과 함께 강한 바람에 의한 월파(越波)파도의 쳐움을 작용에 의해 바닷물이 방파제 넘어 가는



현상)와 침수피해 등도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날부터 경로당 등 태풍 취약시설에 대해 소관 부서별로 긴급 점검활동을 벌이고, 태풍이 지나갈때까지 24시간 비상근무에 돌입하기로 했다. 특히 전남도는 '휴가 복귀형'까지 내리는 등 태풍 피해 최소화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65년 만에 만난 혈육 '금강산 울음바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 시작

남북의 이산가족들이 꿈에 그리던 헤어지고 드디어 다시 만났다. <관련기사 3면>

89명의 남측 이산가족과 동반 가족 등 197명은 20일 오후 3시 금강산호텔에서 북측 가족 185명과 단체상봉에 들어갔다. 분단 이후 만날 수 없었던 남북의 가족이 65년 만에 재회한 것이다.

이번에 북에 있는 자녀를 만나는 이산가족은 7명이다. 형제·자매와 재회하는 이들이 20여 명이며, 조기를 비롯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3촌 이상의 가족을 만나는 이들이 상당수를 차지한다.

한신자(99) 할머니는 북한에 두고 온 두 딸 김경실(72) 경영(71) 씨를 만났

다. 전쟁통에 두 딸을 친척 집에 맡겨둔 탓에 셋째 딸만 데리고 1·4후퇴때 남으로 내려오면서 두 딸과 긴 이별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국군포로 한 가족과 전신남북자 다섯 가족도 눈물의 첫 만남을 가졌다. 남측 이산가족이 상봉을 원했던 국군포로와 전신남북자 당사자들은 모두 세상을 떠나 북쪽의 남은 가족과 만났다. 최기호(83) 씨는 의용군으로 남북된 세 살 위 큰형 영호 씨가 2002년 사망해 조카들과 대면했다. 이재일(85) 씨도 남북된 형 재역 씨가 1997년 사망해 대신 조카들을 만났다.

이산가족들은 22일까지 2박 3일간 6차례에 걸쳐 11시간 동안 얼굴을 맞닿 기회를 가진다. /연합뉴스

전두환 신군부, 5·18 가짜 정보 미국에 흘렸다

기록관, 美 기밀해제 문서 분석
"광주 공산화 되고 있다" 퍼뜨려
미국, 지배력 확보위해 군부 인정

5·18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가 '광주가 공산화되고 있다'는 가짜 정보를 생산해 미국 정부에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은 이를 간파했지만 한국에 대한 지배력

을 확보하기 위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군부 독재를 인정한 정황도 드러났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미국 언론인 팀 셔록(67)씨가 지난 2016년 미국 정부로부터 입수해 광주시에 기증한 5·18 관련 기밀해제 문서(3530쪽)에 대한 번역·분석 결과물을 발표했다. <관련 기사 6면>

분석 결과 신군부는 '한국이 제2 베트남이 되지 않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했다'고 미국에 알렸다. 1980년 5월25일에는 광주

에 인민재판부가 설치돼 처형이 있었고,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이제 군사행동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는 정보가 미국에 흘러들어갔다. 같은 해 6월 3일에는 무장 폭도 2000여명이 무등산으로 도주했으며 이 중에는 공산주의자들의 침투를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미국측에 전달됐다.

또 신군부는 5월24일 서울에서 불잡힌 간첩 이창룡은 광주 침투가 목적이었으며, 5월25일 옛 전남도청에서 고정간첩에

의한 독침 사건이 발생했다고 발표하는 등 남과 간첩이 사회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고 퍼뜨렸다. 문서를 번역한 연구진들은 미국이 박정희의 죽음 이후 한국의 공산화를 우려하는 상황에서 신군부는 이를 활용해 미국의 인정을 받았다고 분석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4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8]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Introducing GLC 350 e 4MATIC

#switchtoEQ

GLC 350 e 4MATIC 출시!
탁월한 퍼포먼스와 놀라운 연비를
동시에 실현한 메르세데스-벤츠의 e-Mobility.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에서 경험하세요!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657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 소문 서비스센터 (062)942-7200 | 광주광역시 광안구 어룡대로 603(소문동) | 수암 서비스센터 (062)961-0090 | 광주광역시 광안구 임방울대로 520(수암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GLC 350 e 4MATIC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2,120kg, 저속7단), 복합회합용모드 연비 (CS연비): 9.7km/ℓ (도심연비: 9.1km/ℓ, 고속도로연비: 10.6km/ℓ), 복합전기모드 연비 (CD연비): 2.3km/kWh (도심연비: 2.0km/kWh, 고속도로연비: 2.6km/kWh), 복합CO₂ 배출량: 92g/km, 1회 충전 주행거리: 15km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제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를 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